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백일장 분야

작품 제목

정직하면 좋은 점

작품 본문

학교나 집 밖에서 일어난 일을 부모님께 말할 때 정직하지 못하게 말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양심에 찔리지만 부모님께 혼날까 무서워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나의 그런 경험들과 그렇지 않은 경험들을 소개해 볼려고 한다.

나는 친구들과 논다고 말하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은 적이 있다. 그 때는 얼마나 동생이 볼 것만 같아서 너무 무섭고 조마조마 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다고 말하고 싶지만 혼날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불안해서 다음부터는 말을 하고 먹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또 다른 경험도 있다. 영어 단어 시험을 많이 틀렸는데 엄마와 아빠가 혼을 낼 것 같아서 100점 맞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단원이 끝나고 선생님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셨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 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시험지를 보여 드렸을 때는 엄마가 나를 혼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정직하게 행동했던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 시험을 많이 틀렸다고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는데 혼이 나거나 꾸중을 들을 줄 알았지만 부모님이 격려해 주셔서 너무 기뻐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부터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정직했던 경험과 정직하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니 정직하지 못하면 안좋은 일이 생기고 죄책감과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이지만 정직하면 좋은 일도 생기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 정직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 정직하지 못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것 같다.